

# 비육할 원우의 선정과 입식초기관리

축산시험장 육우과장  
이근상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한우나 육우에 대한 비육기술 수준도 이제는 많이 발전 향상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면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한우의 사육목적이 주로 역용 또는 역육용에서 육용으로 전환되면서 비육기술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나 기술 지도보급 그리고 좋은 비육사료들의 개발 보급과 더불어 사육자 스스로가 새로운 기술 습득에도 힘쓰면서 사양관리를 잘 해오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육성과를 좀 더 올려놓기 위해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아직도 개선 발전시켜야 할 기술들이 많다. 특히 비육의 성패를 좌우하면서 비육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고있는 비육할 원우의 선정문제 그리고 입식초기의 길들이기나 관리기술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하므로써 잃고있는 손실도 적지 않다고 보아 여기에 좋은 비육 원우의 선정및 입식우에 대한 초기관리의 중요성과 그 실시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것이 요즈음까지도 소값 하락에 의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육우 사육농가들의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되기를 기원하면서 집필하는 바이다.

## 2. 비육 원우의 선정 요령

비육우 경영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육우에 대한 사양관리를 합리적으로 잘 하여야 되겠지만 비육할 원우(기초우)를 우선 잘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비육할 원우는 어느 비육형태이던 간에 비육능력이 좋고 건강하여야 할 것이며 될수있는 한 사육조건들이 비슷한것으로 잘 선정 구입하여 입식시켜야 할것이다.

비육 원우의 선정은 비육우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술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값을 우선 고려하면서 아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기에 여기에 여러가지 방향에서 좋은 비육원우를 선정하는 요령에 대하여 설명 하는 바이다.

### 가. 소의 크기나 체형등에 따른 선정

비육할 원우의 크기나 체형, 자질, 성질등은 그 소의 산육능력이나 육질등의 비육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소의 크기나 체형 자질 성질등은 어디서서든지 원우의 선정기준으로 삼아 많이 이용되고 있다.

#### (1) 원우의 크기

일반적으로 체격이 과대한 소는 체격에 비하

여 많은 사료를 먹어 체중이 증가하는 소위 사료이용성이 낮고 비육효과도 다소 떨어 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뼈가 너무 굵거나 가죽이 두텁고 털이 조강하면서 육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체격이 너무 작은 소는 사육하기가 까다로운 편이고 증체량도 적고 지육율이 낮으므로 만약 육질이 좋다고하여도 두당 판매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육한 원우를 선정할 때는 너무 크거나 작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시말하면 원우의 크기는 체고가 그 소 품종의 정상발육치보다 너무나 넘거나 미달되는 것보다는 중간치의 것이 좋다는 것이다.

#### (2) 원우의 체형

외견상 몸의 깊이가 있고 폭이 넓으며 몸통의 길이가 적당하며 체적이 좋은 소가 비육효과가 크며 산육능력도 좋은 소들이다. 송아지의 경우라면 얼굴이 작아보이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늘씬하고 다리는 길어 보이면서도 뒷몸의 높이가 다소 높아 보이는 소들이 비교적 성장발육이 좋은 편이다. 이와는 반대로 송아지 때부터 성숙한 소와 같이 균형이 잡힌듯한 송아지는 오히려 성장발육이 더디고 아주 큰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한편 증구(가운데 몸통)에는 몸전체 중에서도 육질이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는 부위인바 몸통의 길이가 늘씬한 것일수록 좋으나 너무 길거나 다리가 너무 길은 소는 몸의 폭이 없고 사육하기가 까다로운 소들로서 비육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많으니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

#### (3) 원우의 자질

소의 자질이란 피모, 피부, 뿔, 발굽등의 상태를 통털어 말하는 것으로서 자질이 좋은 소들은 일반적으로 볼때 육질이 좋은 소들이다. 털은 가늘면서도 밀생되어 있고 피부는 얇고도 부드러우며 탄력성이 있으며 뿔과 발굽은 뻗들거리면서 윤기가 있고 다리 뼈는 가늘면서도 튼튼해 보이고 관절이 잘 발달된 소들이 좋다.

#### (4) 원우의 성질

비육한 원우는 성질이 온화하고 침착한 소가 바람직하다. 신경질적인 소는 침착성이 없어 사료의 먹성도 나쁘므로 비육효과가 적은 편이다. 특히 다두사육시는 다른 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당하지 못하다.

#### 나. 건강상태에 따른 선정

비육원우가 건강하다는 것은 절대조건이다. 건강치 못한 소는 결코 증체가 되지 않을뿐 아니라 사양관리에도 힘이들고 심한 때는 폐사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상치도 못한 손해를 보는 수도 있으니 건강한 소를 우선 선정토록 해야 한다.

비육원우가 건강치 못한 소라고 식별할 때의 착안점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동작이 활발치 못하고 피모의 광택이 없으며 탄력도 없고 항문 주위나 꼬리 부위에 똥이 묻어 있어 항상 지저분하고 똥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거나 색이 보통과 다를때는 소화기의 질환이 있는 소들이 많다.

(2)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피모에 윤기가 없고 원기가 부족한 소들은 대체로 기생충감염에 의한 환축일 경우가 많다.

(3) 코등(비경)이 건조하고 눈이 활기가 없으며 코, 입, 눈, 음부 등에서 이상한 분비물들이 나와있는 소들은 환축들이다.

(4) 큰 암소로서 미근부가 유난히 위로 올라붙고 그 주위는 썩 들어간 소들은 대체로 난소 낭종이 되어 지속성 발정이 오는 소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소들은 비육시 증체효과가 거의 없어 비육원우로서는 아주 부적당하다. 그리고 임신 중인 소는 역시 비육을 시켜도 태아의 성장발육으로 인하여 비육효과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임신우는 절대로 비육 출하할 수도 없는 것이다.

#### 다. 영양상태에 따른 선정

가축시장에 출장되는 송아지를 보면 포유기간 중의 관리상태나 농후사료의 급여 정도에 따라 영양상태가 아주 좋은 소로부터 아주 나쁜 소들

도 많다. 비육할 원우의 영양상태는 건강한 소라면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으나 아주 나쁜 것들은 건강치 못한 소로보아 구입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영양상태가 아주 좋은 것들은 농후사료의 다급령 비육으로서 12개월 내외인 단기 또는 중기비육원우로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소들은 대개가 입식후 초기 증체가 둔화되고 비육을 오랫동안 지속할때는 지방축적이 너무 많아져 지육단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방목이나 성력관리를 하면서 조사료 다급형으로 육성하여 영양상태가 보통이하인 것들이라면 비육전기에 양질의 조사료다급을 시키면서 18개월 내외의 장기비육형의 원우로서 적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송아지들은 외견상으로 볼때는 영양상태가 다소 불량한 듯 싶으나 생리적으로는 조사료의 이용능력은 비교적 잘 갖춰진 소들로서 발육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을때는 비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 라. 기타 구입시 유의사항

(1) 비육원우는 구입할 때는 구입가격을 고려하여 싼 소만을 선정구입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선정요령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비육효과가 좋은 원우를 구입토록 하는것이 경제적이다.

(2) 가축시장에 출하된 특정우에 대하여 여러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경우 경합을 하면서 까지 능력이상으로 평가하여 비싸게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일반적으로 볼때 등록된 소의 자손이나 각도에 있는 한우번식우 단지에서 생산되는 소들은 일반우에 비하여 체형이나 능력이 우수한 것들이 많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4) 우시장의 소값은 종전과 같이 농사철에 따른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이 형성되고 있으며

로 각자의 사양규모나 비육우의 출하시기 등은 고려하여 몇 차례로 나누워 구입하도록 하는것이 좋은 것이다.

### 3. 비육 원우의 관리하기

#### 가. 입식 초기의 관리

비육할 원우를 선정 구입하여 입식할 때는 입식전에 미처 준비할 사항들이 있으며 입식직후에는 몹시 피로한 상태이므로 안정과 피로회복을 위한 관리들을 잘 해주어야 한다.

##### (1) 소 입식전의 준비사항

비육할 원우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산육성된 것들로서 이들을 1 개소에 수용 사육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병원체들이 전파될 가능성도 있게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수용사육할 우사는 수일전여분노나 외양실들을 깨끗이 치운다음 크래졸 비누액이나 하라솔등 기타의 축사소독약으로 우선 소독을 하고 건조시킨후 새로운 깔짚등을 넣어준다.

한편 젖뎀 송아지들은 대부분이 어미소와 떨어지면서 침착성이 없고 불안하여 축사의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머리카라리를 넣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사고날 우려도 있으니 사고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 (2) 도착직후의 관리

새로히 축사에 도착된 송아지는 이유와 수송 등의 스트레스(충격)에 의하여 몹시 피곤해져 있고 대부분이 공복상태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도착당일에는 물만을 먹이면서소량의 건초와 짚만을 넣어주고 조용히 쉴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장거리에서 수송된 소들에게는 특별히 피로회복제인 비타민A등을 주사하여 피로가 빨리 가시도록 해준다. 그리고 2~3일간은 위기능강화제(도루라제등)을 두당 50~100g씩을 주워 소화장해를 예방해 준다. 그리고 도입 후의

송아지들은 피로등 스트레스와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설사, 감기들이 걸리기 쉬운점을 감안하여 항상 건강관리에도 유의하고 만약 질병이 발생 되었을 때는 빨리 치료토록 하여야 된다.

#### 나. 사육환경에의 길들이기

새로 구입해온 소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면 대체로 나이가 들고 월령이 많을수록 높은 경향은 있으나 대체로 사육환경의 변화에는 꽤 민감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비육할 원우들은 새로운 생활터전인 우사나 사육방법등에 빨리 길들도록 관리 해주어야 한다.

##### (1) 우사에의 길들이기

비육할 원우들은 비육우사의 형태가 어떤 류형이던간에 우사의 환경에 빨리 적응되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계류식으로 목을 매어놓고 비육을 시키려는 우사의 경우라도 도입직후의 얼마동안 한 우방안에 놓아 집단사육을 하다가 차차로 매어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 구입하여 입식시킨 소들은 어떠한 사육방법이나 우사안에서 사육하더라도 최소한 약 2주일 정도는 소의 상태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소를 관찰할 때는 소의 무리에서 처지는 소가 없는지의 여부를 우선 보면서 소의 원기가 있는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 (2) 사료에의 길들이기

새로 입식시킨 원우는 새로운 사육환경에 길들어 안정감을 찾아야 되겠지만 매일 먹어야 할 사료에도 빨리 적응토록 관리해 주어야 한다.

새로운 사료에 길들이는 기간중에는 원우의 증체는 기대하지 말고 처음에는 양질의 건초나 청초등을 벗짚과 적당한 비율로 섞어 급여하면서 배합사료는 조금씩 서서히 바뀌어나가는 것이 좋다.

물론 배합사료의 급여량은 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입식 다음날부터 급여하되 처음 몇

일간은 하루 0.5kg정도씩만을 주다가 4~5일간격을 두고서 채식하는 상태등을 고려하여 약 2주일 정도에서 체중의 약 1%정도까지 먹도록 하는것이 좋다. 아무리 식성이 까다로운 개체라도 약 20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와같이 사료에 길들일때 사료를 조금씩 주면서 새로운 사료에 길들이는 것은 소의 제1위안의 미생물상을 새로운 사료의 구성에 따라 바뀌어지게 하는데도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젖떼기 전의 포유기간중에 보조사료를 너무 많이 먹인 소들 중에서는 송아지의 음모에 흰 결석이 붙어 있는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소들이라면 상당한 기간동안은 양질의 조사료를 주체로 하는 사육방법으로 육성사양하다가 비육사료를 주지 않으면 비육후기에는 뇨결석중에 걸리기 쉬우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아 물론 비육 원우에 대한 사료의 길들이기는 소에 대한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보면서 서서히 하다가 비육사양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구입한 소의 전사육자를 아는 경우라면 입식전의 사료상태나 사육방법을 자세히 듣고서 사육하면 길들이기에 꽤 편리하고 길들이는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것이다.

## 4. 멧는말

비육우 경영의 성패도 좌우된다는 비육 원우에 대한 중요성과 그 선정 요령 그리고 입식초기의 길들이기와 관리기술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아무쪼록 각자의 비육형태에 알맞은 좋은 비육원우를 우선 잘 선정하여 입식초기의 관리를 좀더 관심을 갖고 해 나갈때는 동일한 사료로 같은 사양관리를 하더라도 비육성과가 분명히 더 증대될 것을 믿는바이다.